



소중한 수자원의 이용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수자원(水資源)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물을 모아 이용하는 자원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다. 우리 역사상 수자원 보호를 위해 치산치수(治山治水) 사업을 창의적으로 잘한 통치자는 박정희 대통령이다. 영산강 한강 낙동강 금강의 4대강 유역에 댐을 만들어 물을 저장하게 했으며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이용하게 했다. 물의 이용을 위해 용수로를 만들고 정수장을 설치해 물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산림녹화(山林綠化)로 수자원을 보호하려고 사방공사 사업을 추진해 벌거숭이 산이 없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에 22조 원을 들여 16개의 보를 만들어 물을 저장하고 이용하게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물의 이용에 창의력이 없어 설치된 보를 해제하는 논의를 했었다. 하늘에서 빗물로 내려온 수자원은 이용하지 않으면 바다로 흘러가 버린다. 정치지도자는 미래를 보고 수자원의 이용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겨울부터 이어진 50년 만의 가뭄으로 전 국토가 메마르고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농도인 전남도 예외가 아니며, 물 부족으로 농민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역대 통치자가 수자원 보호와 이용에 힘썼기에 모내기를 적기에 이양(移秧)했으며 용수로를 통해 저장된 물을 공급을 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남 강수량은 3.4mm로 평년(1991년~2020년) 5월 강수량 111.7mm의 3% 수준이다. 1973년 이후 5월 강수량으로는 가장 적다. 올 초부터 6월까지 누적 강수량도 247.4mm로 평년 505.8mm에 비해 50%도 안 된다. 5년 전인 2017년 6월에도 100년 만의 가뭄으로 농가의 피해가 컸는데 또다시 5년 만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다.

언론에서는 농민들의 애대는 마음과 가뭄 극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바다를 드러낸 저수지나 하천 상태를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이제는 50년 만의 가뭄, 100년 만의 가뭄 또는 팔십 평생 처음 보는 가뭄 등 이러한 표현이 일상화되는 듯하다. 기후 변화로 인해 앞으로 가뭄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반복되는 가뭄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

기에 수자원을 많이 확보 하는 게 최선의 대책이다.

영산강 상류에는 장성댐 나주댐 광주댐 담양댐의 4개 댐이 있어 물을 저장하고 있으며 승촌보에는 600만 톤 죽산보에는 1,600만 톤의 물을 저장하고 있어 이용하고 있다.

가뭄에도 영산강에 인접한 전남 서남해안 지역인 함평, 무안, 영암, 해남, 강진군 일부 지역은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영산강 하구에 위치한 영산호가 있기 때문이다. 영산호는 1981년 영산강 대단위 농업개발사업(2단계)으로 설치된 담수호로서 2억 5,300만 톤의 영산강 물을 저장하고 있다.

또한 영산호는 폭 150m, 길이 5,620m의 연결수로로 통하여 1993년에 완공된 영암호(2억4,500만 톤)와 연결되어 있으며, 영암호도 최대폭 70m, 길이 9,320m의 수로로 1996년에 완공한 금호호(1억3,300만 톤)와 연결되어 있다.

영산호, 영암호, 금호호의 3개의 담수호는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호수로써 총저수량은 6억 3,100만 톤에 달한다. 올해 같은 극심한 가뭄에도 농가나 대불공단에 물 걱정 없이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영산강과 영암호, 금호호 등이 있기에 가능하다.

영산강을 따라 내려오는 강물을 승촌보 죽산보와 영산호, 영암호, 금호호에서 저류하여 금년과 같이 가뭄으로 대지가 마르고 농작물이 자라지 못해 농가의 근심이 커지고 있을 때, 생명의 강인 영산강은 전남 서남해안의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생명의 싹을 틔움으로써 살아있는 감동을 증명하고 있다.

물 부족국에서 사는 우리는 물을 아껴쓰고 소중한 수자원을 잘 보호해서 저장하고 양수장과 용수로를 만들어 저장된 물이 농업용수로 안정적인 공급이 되게 하여 걱정 없이 영농할 수 있는 선진 농업국을 만들어야 하며, 저장된 물은 창의적으로 관리해 녹조현상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칼럼

소방 MZ세대기 대원과 의사소통 노력 필요

기고

신향식 장흥소방서장



2020년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열악한 소방환경 개선과 더불어 부족한 신규 소방 인력 충원이 많이 되었다.

전남의 경우 현원 4,110명 중 MZ세대 20~30대 가 2,400여명으로 현원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MZ세대의 신규 소방공무원의 인력 확충으로 조직은 계급적인 문화와 상명하복식 위계질서로 기성세대와의 갈등 또한 간간히 발생하고 있다.

시대가 흐르면서 그 어떤 시대에도 세대 차이는 존재했지만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은 기성세대는 디지털 시대의 최대 이용자들인 MZ세대들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 어려움을 더욱 느낄 수 있다.

소방조직은 소방활동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동체제이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은 한 조직의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일은 서로 다르지만 그 기능들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상호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활동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통합과 조정은 의사소통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의사소통의 이루어지는 방식에는 종적(縱的) 의사소통과 횡적(橫的)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며 종적 의사소통은 다시 하향적(下向的) 의사소통과 상향적(上向的)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의사소통 방법은 조직원 간의 관계에서 결함을 극복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저마다 특성과 효과가 있다 하겠다.

이렇듯 여러 가지 소통 방식이 있지만 세대 차이와 세대간의 갈등 극복을 위한 소통의 비결 중에 으뜸은 세대 간에 더욱 치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 배려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배려하는 마음이 기반이 되어야, 거기에서 다른 세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람에 대한 깊은 존중과 감사의 마음은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인간관계를 더 원만하게 해 줄 것이다.

특히나 상급자들은 MZ세대와 서로의 성장 과정이 다름을 인지하면서 '따스한 배려와 격려로 다가서고 상호 존중한다면 갈등은 해소되고 소통으로 우리 소방 조직이 모두에게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직장이 될 것이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honam@naver.com

'드론테러'에 경각심을 가져야

강성우 광양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자금을 지원하던 외국인 일당이 적발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청정국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항공안전법상 드론에 대해 야간시 간대 비행 금지, 150m 이상의 고도 비행금지, 공항이나 원자력 발전소 주변,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비행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드론이 각종 취미활동을 넘어 영화·방송 촬영, 재난과 재해, 구호, 농약살포 등 산업용과 농업용 및 레저용 등으로 활용되면서 드론산업이 전례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같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드론을 이용한 테러의 위험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드론이 주목을 받으며, 미래전쟁의 주력으로 떠오르고 있고, 국제적으로 주요시설 및 인사에 대한 드론 이용 테러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드론 테러 사례가 없지만, 전국적으로 경찰에 접수되는 드론 관련 신고 건수가 '19년 84건, '20년 465건, '21년 566건'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도 시리아 테러단체에

그러나, 손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소형 드론으로도 간단한 비행이나 조종을 통하여 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제도만으로는 드론 테러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기에는 역부족이고, 드론조종자를 찾아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과 재밍건(전파 교란 장치)의 배치 사용되고 있지만, 완벽한 대비책이 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비행 제한 지역이나, 군사시설 내 드론을 목격하는 등의 의심이 든다면, 신고를 통해 사전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작은 관심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기고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고을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윤천로 213 스카이맨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효호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를 위해 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